


국내외 경제  
**현안과 과제**

2010. 3. 15.



| 최근 국내 경기의  
제약 요인과 정책 과제

## I. 최근 국내 경기 개요

### ○ 최근 국내 실물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나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- 생산, 소비, 투자 등 1월 내수 부문 경기가 전년 동월에 비해 호전 양상
  -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6.9%를 기록하여 작년 12월 34.3%보다 증가
  - 소매판매 역시 승용차·컴퓨터·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 증가로 6.9% 증가
  -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증가로 11.3% 증가
- 외수 부문도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
  - 수출은 전년동월대비로 1월 46.7%, 2월 31.0%의 높은 증가율 유지
  - 수입도 내수 경기 호전과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1, 2월 각각 26.4%와 36.9% 증가 기록
  - 무역수지 1월에는 4.6억 달러 적자, 2월에는 23.3억 달러 흑자로 재반전

### ○ 한편 금융 부문도 유럽발 재정 위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띠

- 금리는 한은의 기준 금리 동결 및 금리 인상 지연 등에 대한 기대 확산 등으로 하락세 유지
  - 국고채 3년물 수익률 1월 평균 4.29%, 2월 평균 4.19%, 3월 9일 현재 4.10%
-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세를 기록
  - 원/달러 환율 1월말 1,161.8 원, 2월말 1,160.0 원, 3월 9일 현재 1,134.5 원
- 종합주가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지속
  - 종합주가지수 1월말 1,602.4, 2월말 1,594.6, 3월 9일 현재 1,660.8

### < 최근 국내 경기 주요 지표 추이 >

(전년동기대비, %)

경제 부문	2008					2009					2010	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12월	1월
경제성장률	2.2	5.5	4.3	3.1	-3.4	<b>0.2</b>	<b>-4.2</b>	<b>-2.2</b>	<b>0.9</b>	<b>6.0</b>	-	-
소비재판매 증가율	1.0	4.4	2.9	1.4	-4.2	2.7	-4.7	1.5	2.8	<b>10.8</b>	<b>12.7</b>	<b>6.9</b>
설비투자추계 증가율	-3.0	-2.4	-2.0	4.4	-11.3	-8.0	-17.9	-12.9	-10.0	<b>10.2</b>	<b>21.1</b>	<b>20.4</b>
수출 증가율	13.6	17.4	23.1	27.0	-9.9	-13.9	-25.2	-21.1	-17.6	<b>11.7</b>	<b>32.8</b>	<b>46.7</b>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## II. 국내 경기 제약 요인

○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 요인도 존재

- 특히, 최근에 들어 산업 생산 증가,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
- 설비투자 조정 압력은 2009년 1/4분기 -19/1%p, 2/4분기 -8.9%p, 3/4분기 1.2%p, 4/4분기 12.8%p, 2010년 1월 34.4%p로 높아지고 있음
- 하지만 소비 회복세 둔화, 서비스수지 적자 급증,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, 고용 회복 지연, 소득 빈곤층 증가 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

○ (소비 회복세 둔화) 소비 회복세가 올해에 들어 크게 약화

- 고용 회복 지체, 가계 부채 증가, 노후차 세제 지원 종료 등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
-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11월 9.7%, 12월 12.7%에서 2010년 1월 6.9%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
- 특히, 전기대비 11월 0.5%, 12월 1.2%에서 2010년 1월 -1.3%로 감소세 전환
- 2010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로 기준치(100)를 상회하지만 2009년 10월 117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향후 소비 둔화가 우려됨

○ (서비스수지 적자 급증) 올해 들어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

-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0년 1월에 21억 6,000만 달러로 2009년 1월 7억 1,000만 달러 적자의 3배 초과

- 2009년 10월~2010년 1월 기간 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79억 4,000만 달러로 2008년 10월~2009년 1월의 21억 5,000만 달러 대비 3배를 훨씬 상회
  - 한편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2009년 연간 426억 7,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월에 4억 5,000만 달러 적자 기록
-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, 해상화물 운임수입 감소로 인한 운수수지 적자, 용선료 등 기타서비스 수입 감소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확대의 주요인
- (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)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금리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출구전략 추진을 어렵게 함
- 원/달러 환율은 2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
    - 원/달러 환율은 3월 9일 1,134원을 기록하며 2월 8일 최고점 1,171원 대비 3.2% 절상
    - 한편, 원/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월평균 2009년 11월 7.1원, 12월 6.1원으로 안정화되었으나 2010년 1월 8.8원, 2월 7.7원으로 변동성이 확대
    - 특히,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은 원화 가치 추가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외여건 악화 시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 - AA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BBB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 유지
    - BBB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2010년 3월 9일 6.98%p로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8년 9월 5.07%p에 비교해 1.91%p 높은 수준임
    - BBB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는 기업의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출구전략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- \* 회사채 금리 신용스프레드는 신용등급별 회사채와 국고채와의 금리 차이를 의미

○ (고용회복 지연) 민간 부분의 고용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공공 일자리 대책의 축소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

-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부분의 일자리 증가세가 대폭 감소하여 2010년 1월 신규 취업자수는 0.5만명에 그침
- 민간 부분의 신규취업자수는 2009년 11월, 12월, 2010년 1월 각각 -32.8만명, -16.7만명, -1.1만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임
- 공공 부분의 신규취업자수는 2009년 11월, 12월, 2010년 1월 각각 31.8만명, 15.1만명, 1.5만명으로 크게 축소됨
-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경우,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25만명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2009년 4.7조원(추경포함)에서 2010년 3.6조 원으로 24% 감소

○ (소득 빈곤층 증가)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경기 양극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

- 경기 양극화로 소득 5분위 가계의 흑자액이 전년에 비해 3.3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, 1분위 적자액은 10.6% 확대
- 그 결과, 2009년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.94배로 2008년 4.87배 대비 0.07배p 증가
- 중위소득의 50%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'상대적 빈곤율'도 2009년 13.1%로 2008년 12.5% 대비 0.6%p 증가
- 또한 2009년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는 기준이 개정된 2003년의 0.270에서 2009년에는 0.294로 지속 상승
- \*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%(5분위)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%(1분위)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

### Ⅲ. 정책 과제

- (소비 심리 관리)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하고 자산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
  -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거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
  - 지역별·수요별 주택 수급 정책으로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 장구 등을 통한 지방 부동산 경기 급락을 방지
- (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실현)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
  - 특히, 관광인프라 개선,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, 금융 및 법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시급히 추진
- (금융시장 불안정성 해소)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정책금리와의 괴리가 큰 대출금리의 하향 조정을 지속 추진
  - 국내 유입된 해외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  - 또한 금융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의 급변동을 최소화
  - 금융기관의 '대출 가산금리 상한제' 등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을 최대한 억제

○ (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탄력 운용)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을 민간의 일자리 창출 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

-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,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
- 특히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경우,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 확대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

○ (빈곤층 대책반 가동)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'빈곤층 대책반'을 가동하여 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

-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교육, 노동, 복지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강구
- 근로장려금(EITC)제도의 확대, 저소득 계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비, 빈곤세대의 자녀 교육 지원비 확충 등을 추진
- 특히 중산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'중산층 육성 저축상품 개발' 등과 같은 중산층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 지원 방안을 강구

□ 경제연구본부

현석원 연구위원(2072-6215, kyotohyun@hri.co.kr)

임희정 연구위원(2072-6218, limhj9@hri.co.kr)

김민정 연구위원(2072-6212, kimmj@hri.co.kr)

정유훈 선임연구원(2072-6919, youhun@hri.co.kr)

정민 연구원(2072-6220, chungm@hri.co.kr)